상진 스님 "백척간두진일보, 일상 화두 삼자"

양주 청련사 삼동결제 해제 회향법회서 법문

양주 청련사=윤호섭 기자

윤리 가치 혜이한 현대사회에는
오종대은 명심불망 필요성 강조


상진 스님이 2월 24일 청련사서 봉행된 삼동결제 해제 회향법회에서 법문을 하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장이자 양주 청련사 회주인 상진 스님이 동안거 해제를 맞아 사부대중에게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를 일상 속 화두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상진 스님은 2월 24일 청련사에서 봉행된 삼동결제 해제 회향법회에서 법사로 나서 〈경덕전등록〉과 〈무문관〉 등에 실려 있는 공안 가운데 하나인 '백척간두진일보 시방세계현전신'을 읊으면서 모든 대중이 지켜야 할 삶의 자세로 강조했다. 스님은 먼저 '막다른 위험에 놓이게 됨'을 뜻하는 '백척간두'를 "온갖 사유의 출로가 막힌 막다른 골목"으로 표현했다. "백척간두는 모든 사유작용을 틀어막는 화두의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한 상진 스님은 "여기서 진일보하라는 것은 천길 벼랑에서 손을 놓으라는 뜻이다. 화두를 온몸으로 부여잡고 큰 의심을 품을 때 모든 생각과 말의 자취가 소멸하고, 최소한 자아의식마저 사라질 때 그 순간이 진일보의 밝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상진 스님은 이어 사람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백척간두이자 천길 벼랑이라는 자세로 삶을 대할 것을 주문했다. 스님은 "인생과 세계는 생각으로 풀어낼 수 없는 거대한 암호와 같다. 우리 스스로가 진정한 백척간두에 있는지 화두로 삼아 깨달음을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천길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둥거려도 떨어지는 걸 막을 순 없다. 떨어진다면 그냥 떨어져라. 삶을 너무 어렵게 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도 살지 말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상진 스님은 또 윤리·도덕적 가치가 해이해진 현대사회를 지적하며 새벽종성의 '오종대은 명심불망(5가지 큰 은혜를 마음에 새겨 잊지 말 것)'을 언급했다. 5가지 은혜는 국가·부모·스승·시주·법우를 의미한다. 또한 마지막 구절에 해당하는 '당가위보유차염불(當可爲報唯此念佛)'을 통해 은혜를 갚기 위한 길로 염불을 제시하고 있다.

상진 스님은 "요즘 논란이 되는 의료대란, 학교 선생님들이 겪는 고충, 군부대 내 기강 문제 등 많은 것들이 '오종대은 명심불망'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것들"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에 거짓은 없다. 그저 수용 못하고 이를 위배하는 내가 있을 뿐"이라고 경책했다.

스님은 끝으로 "잘되면 기분 좋고 안 되면 속상한 마음은 이제 내려놓고, 기원도 하고 서원도 하면서 경전이 어렵다면 염불에 매진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자"고 말했다.

한편 청련사 동안거에는 11명의 대중이 동참했으며, 청련사는 이날 안거 해제와 더불어 신중3일기도를 회향하고 정월대보름 맞이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화엄사, 화엄문도 합동추모다례·부도탑 제막

2월 25일 경내 각황정 · 부도전
부토탑 1기에 30명 봉안 가능


동참자들이 '화엄문도 부도탑'을 제막하고 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가 2월 25일 경내 각황전과 부도전에서 '불기 2568년 갑진년 지리산 화엄사 화엄문도 합동추모다례재 및 화엄문도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날 각황전에서 열린 다례재에는 화엄문도회 문장 종국 스님과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부주지 우석 스님, 선등선원장 본해 스님을 비롯해 화엄문도스님들과 장길선 화엄사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화엄문도회 문장 종국 스님은 "화엄사가 있기까지 많은 선대 스님들의 노력과 정진으로 오늘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도 문도스님들과 소통을 통해 화엄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덕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많은 어른스님들이 입적하셨는데, 올해에는 모든 문도스님들이 건강하시길 기원한다"며 "화엄문도의 원력을 모아 오늘 문도 부도탑을 제막하고, 올해 안으로 가마형 화장막을 조성해 모든 문도스님의 장례를 여법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엄문도 최초로 정광고 교장 소임을 맡은 영일 스님은 "정광학원은 호남 5대 교구 본사가 1946년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불교종립학교로, 광주에서 가장 큰 학생 규모를 자랑하는 사학 명문이다"며 "화엄사 문도라는 자부심을 갖고, 교법사 20년 생활을 회향하는 마음으로 선배스님들이 만드신 학교를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일 스님은 화엄사에 승려복지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동참자들은 화엄사 부도전으로 자리를 옮겨 '화엄문도 부도탑'을 제막했다. 부도탑은 1기에 30명을 봉안할 수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양사 불교대학 개교…장성지역 포교 나선다

3월 5일 개강…학생 모집 중
무공 스님 "교육 · 포교 매진"



전남 장성지역 불교 포교를 위한 첫 불교대학이 개설된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그동안 불교 교육기관이 없었던 전남 장성지역에 '백양사 불교대학'를 개원하고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

첫 학장에 취임하는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사진〉은 "지난 4년간 문도스님들의 화합을 통해 옛 백양사의 모습을 복원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미비했던 불교교육과 포교사업에 매진할 예정이다"라고 불교대학 개원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무공 스님은 "지역 거점의 포교 공간으로 백양사 불교대학이 명품 불교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강사진을 구성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차별성에 대해 "명상과 선 수행에 주안점을 두고 향후 졸업자들을 위해 불교명상대학원을 개설해 심화된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양사 불교대학의 교육내용은 1학기 부처님의 생애, 불교입문 2학기 명상 실습, 천수경, 반야심경 강의를 구성했다. 별도 강의로 입학생에게는 무료로 템플스테이와 성지순례, 특강,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한편 백양사 불교대학은 3월 5일 오후 2시 장성 상무대 영외법당인 명상원에서 개원식과 입학식을 진행했다. 강의는 1년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진행되며, 강사로 지현 스님(수록사 주지), 여일 스님(상무대 군법사)이 담당하며 만민스님, 정궁 스님, 선묵 스님이 특별강사로 나선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울산불교사암聯, 정월대보름 방생법회 봉행

태화국가정원 잔디정원서
장어 치어 2500마리 방생



울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원 스님)이 갑진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2월 24일 울산 태화국가정원 삼호지구 잔디원 특설무대에서 정월대보름 합동 방생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울산의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마련된 이날 법회는 조계종울산불교사암연합회와 울산 삼호동 청년회, 삼호동 체육회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불교종단연합회가 후원했다.

울산불교사암연합회장 혜원 스님은 "방생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의식으로 적극적인 선업의 행위"라며 "생명을 가진 모든 중생뿐 아니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방생의 의미"라고 말했다.

서동욱 울산남구청장은 "방생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가는 과정은 굉장히 의미 있고, 울산시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생의 공덕으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생법회에서는 울산 태화강 생태계에 적합한 장어 치어 2500마리가 방생됐다. 이어 참석대중은 달집태우기 행사장으로 이동해 달집을 태우며 올 한 해 모든 액운을 소멸하고 복이 가득하길 기원했다.

이날 행사장 주변에는 소망지 쓰기, 어묵·떡·차 등 먹거리 부스가 마련됐다. 태화강변에서는 삼호동 체육회와 청년회가 주관하는 연날리기, 강강술래, 풍물패공연, 윷놀이, 제기차기, 지신밟기, 줄다리기 등 민속놀이가 진행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자기희생 아는 군인 돼 달라"

해군사관학교 호국사 졸업 · 임관 축하법회



해군사관학교 78기 졸업 및 임관 축하법회가 봉행됐다.〈사진〉

진해 해군사관학교 진해 호국사(주지 영우 스님)는 2월 28일 학내 호국사 법당에서 78기 졸업 및 임관 생도들을 축하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총무국장 혜징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해군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민족의 성웅 충무공의 후예로서 호법신장과 같은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여 왔다"며 "조국의 대해를 가로지르는 담대함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해군 해병대 장교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법문을 통해 "종교는 진리를 향해 가는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처님께서 모두가 행복해길 바랐던 것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훌륭한 군인으로 원대한 포부를 성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모범 생도를 축하하는 시상식도 이어졌다. 고준혁 생도가 총무원장상, 이여경 생도가 포교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표창, 군종교구장 표창, 모범불자상 수상, 장학증서 전달도 이어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창 선운사 총신도회장 이취임법회

정찬원 회장 등에 임명장 수여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 총신도회 임종혁 전임회장과 신임 정창원 회장 이취임법회가 2월 24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봉행됐다.〈사진〉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2년 동안 묵묵히 신도회를 이끌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임종혁 전임회장님 덕분에 큰 힘이 됐다"며 "정찬원 신임회장님은 여러 신도의 뜻을 하나로 규합해 선운사와 교구를 넘어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정찬원 신임회장은 "선운사 신도회는 종단을 외호하고 불교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고 전하는데 신도회의 역량과 조직을 강화하고 불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퇴임하는 임종혁 전임회장은 선운사 전주포교당 건립성금 1200만원을 기탁했다. 또 신임 정찬원 회장은 삼세불 탱화 조성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창녕 관룡사 불교대학 6기 졸업식

66명 졸업, 포교사 8명 배출



창녕 관룡사 불교대학(학장 정안스님)이 2월 24일 관룡사 대웅보전에서 6기 불교대학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졸업한 66명은 조계종 '부동' 신도품계와 졸업장을 받았다. 졸업생 8명은 포교사 고시에 응시해 전원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학장 정안 스님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했다"며 "관룡사 불교대학이 최고의 불교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정각사,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2월 24일 무공 스님 초청 법문



익산 정각사(주지 일행 스님)가 2월 24일 익산시민과 함께하는 정월대보름 '해는 지고 달을 품다'를 개최했다.〈사진〉

달집태우기에 앞서 경내 극락보전에서 조계종 18교구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초청법회도 열렸다. 법회를 마친 대중들은 달집태우기 행사장으로 이동해 각자의 소망과 바람을 적은 소원지를 태우며 익산시의 번영과 정각사의 발전과 마을의 평화를 기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안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 개최

사찰 · 마을 안녕 기원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 스님)와 석포리 당산제 보존위원회(회장 박병우)가 2월 23일 경내 마당과 일주문 앞에서 '석포리 당산제'를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내소사 주변의 입암마을 등 5개 마을 주민과 불자들이 동참했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당산제는 사찰과 마을 주민들 화합하며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